

### 아름다운 선택, 입양!

#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설레임

긴절한 입양규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는 위해 제정된 위양의 날(5월 11일)이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가정의 날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담아 11일로 정한 입양의 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로 위양된 아동의 수는 총 23만636명(2007년 12월 31일 기준). 이중 해외 입양아는 16만309명으로, 국내 입양아 7만327명의 갑절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세 해외 입양아수는 감소하고 국내 입양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희망의 바깥을 예고하고 있다. 몇년 전만 해도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던 국내 입양이 활발해져,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입양아수(1388명, 52.3%)가 해외 입양아수(1265명, 47.7%)를 앞지른 것.

국내 위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고속성장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동안 쉬쉬하며 행해졌던 국내 위양이 '공개가족위양제'로 탈바꿈하기 시작하고, 정부의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이 실시되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가



△국내 입양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사진은 지난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입양의 날 행사 모습.

## 최근 수년 새 입양 희망가족 크게 늘어 작년 국내 입양 1388명, 해외입양 추월 장애아동 입양적고여아 선호는 문제

족수도 한해에 200여 가족이 나 증가했다.

또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면 5개월 동안 해외로 입양될 수 없고 그 사이에 국내 입양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를 정부가 지난해 1월에 도입하면서 국내 입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최근 변화되고 있는 신(新) 결혼관과 가족관도 새로운 입양 정책에 힘을 북돋고 있다.

여기에 유명인들의 공개 국내 위양이 국민적 관심을 부추겼고, 입양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 주는데 기여했다.

제주에서는 1984년부터 흥익아동복지센터가 국내 입양을 담당, 지금까지 310여명의 아동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흥익아동복지센터 김정미 사회복지사는 "입양은 새 생명을 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경제성장으로 한껏 몸집만 부

### 국내 입양 절차는

1. 부부와 가족간의 충분한 입양협의
2. 입양상담
3. 입양신청(서류접수)  
입양지정기관에 준비한서류를 접수  
(구비서류는 입양기관마다다소 차이)
4. 입양부모교육
5. 가정방문
6. 아이선보기
7. 입양
8. 사후관리 및 상담

푼 우리 사회에 정신적 성숙과 여유의 미덕을 채워 넣는 일이 한층 요구되는 이때 입양으로 나누는 기쁨과 사랑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지만 국내 입양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와 편견으로 장애아동의 국내 위양은 극히 드물며, 뿌리 깊은 가부장적 현통주의로 말미암아 여아의 입양이 남아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또 해외 입양아동의 생모 99%가 미혼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위양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성소수자, 미혼, 한부모 가정의 입양이 어렵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소영 명예기자>

### 16일 '희망제주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지원사업인 '희망제주포럼'을 오는 16일 오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1회 희망제주포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순우 교수가 '사회투자전략의 지역복지적 실천방안'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가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복지서비스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제주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분야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과 9월, 10월, 11월에도 분야별 주제를 선정, '희망제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지면소개

- 종합 ..... 2·3면  
아동학대 추방의 날선포식  
시설 탈방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사회복지소식 ..... 4·5면  
무료급식 봉사·소식마당  
푸드뱅크·알림마당
- 오피니언 .....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 7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 다자녀 가정 우대로 출산친화적인 사회

# Jeju 아이사랑행복카드가 함께 합니다.

□ 시행일 : 2008. 3. 12일부터

#### 주요 우대 할인혜택

- 출산준비물, 부유, 활력수강, 종합검진, 안경구이 세탁소, 제과점 이용시 10~20% 할인
- 우천아·어머니 이용시 5% 할인, 보육시설임소로 면제
- 카드연회비 평생면제, 금융우대 특이저할부하

#### 참여업체에 드리는 혜택

- 카드기광은 수수료 0.2% 환인
- 2년기대출 0% 할부
- 참여인증사 구분 및 인증마크 작
- 홈페이지, 카드기광명·에 올림, SMS 등 다양한 홍보

□ 발급대상 : 만19세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정(임산한 경우 포함)

□ 발급문의 : 농협 진 영업점(지역농협 포함)

→ 다자녀 가정 우대 「Jeju 아이사랑행복카드」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인증 모집합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710-2891





# “우리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 4월 25일 제1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선포식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제1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선포식’(사진)을 4월 25일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과 김상렬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전예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김은정 관장은 주제발표에서 “어린이와 관련해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와 교육청, 경찰청, 아동학대에 방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양육, 안전, 보호를 위해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위험요인으로부터 피학대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의 양육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학교와 경찰청은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학대예방과 안전망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와 경찰,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가 안전도시로서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7일에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아동학대추방 캠페인을 전개해 아동학대추방 서명운동과 아동유괴방지 및 성학대 예방홍보물 배포, 아동학대예방 사진전 등을 열었다.

##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설 인력난 ‘해소’

제주시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132명이 60여개 복지시설에 배치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활동 보조, 경비, 방문지 안내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2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및 현장실습, 응급처치요령 등을 익힌 후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익요원은 전역 후 본인이 배치돼 있던 복지시설에 삶의 터전을 잡아 활발하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치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시설 근무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병무청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 사회복지협의회 3월 후원금 현황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사용내역	금액
재가결연후원	1,340,000	재가결연대상자후원	2,00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	-
복지사업후원	1,790,000	복지사업	1,014,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寄稿 기고

###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면서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담당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감사와 기쁨, 싱그러움과 활력이 넘치는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청소년관련 시설·단체에서는 다채로운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두 축의 조화로운 정책 실현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달 5월에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중점 계획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다. ‘청소년문화존’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와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제주시 지역은 산지천문화예술마당에서, 서귀포 지역은 락올레플레이장에서 5월 3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운영케 되며 청소년·관광객·일반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장기와 노래 실력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청소년가요제’가 5월 16일 제주시 해변공원에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과래를 울리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5월 24일에는 세대의 벽을 허물고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족·제자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달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는 청소년업무유공자와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실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계획하고 있다. 제36회 성년의 날(5월 19일)에는 축하 엽서 발송과 함께 행정사에서는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념식과 전통 성년의례를 거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는 고유사업실시와 함께 야영대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환경캠프, 부모교육 특강, 감사편지 쓰기, 봉사활동 전개 등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달을 축하하고,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따뜻한 시선은 청소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세계의 주역으로 키워내는 원동력이 된다. 5월 한 달 만이라도 내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칭찬 한마디, 격려의 눈빛을 보내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나홀로 아이들 걱정마세요”

### 제주도, 단기방학급식·아이돌보미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급 학교들이 단기방학을 실시함에 따라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급식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급식지원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우선 단기방학으로 인한 결식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단기방학 일수를 추가해 지원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연결해 지원할 계획

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급식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으로, 이용요금은 1인당 3000원이다. 식비는 한 끼에 5000원 이내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46곳에서는 주말과 공휴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나홀로 어린이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의 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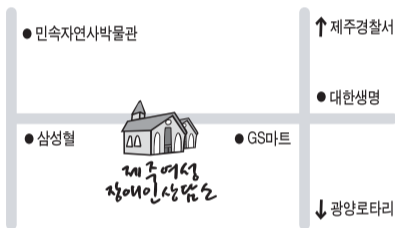
시선탐방

(6)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여성장애인지킴이 자리매김

2003년 여성장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문을 연 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이하 상담소).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위기개입과 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하고, 더불어 여성장애인이 더 이상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방치 대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상담소의 주요활동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각 장애별 예방교육 ▲성(Sexuality)교육 ▲여성장애인 폭력의 심각성 환기·인식개선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의료·법률지원 및 치료·회복사업 ▲집단상담, 사이코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존자로 거듭나기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 정책 건의 및 모니터 ▲성교육 및 성폭력 실태조사, 사례 연구 등 자료발간 등이다.

## 성폭력 피해 예방 중점...자격증 취득 도움도

### 김경미 소장 "여성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최선"

상담소는 지난 5년간 성폭력상담 715건을 비롯해 가정폭력, 성매매, 가정문제 등 총 180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으로 심층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공동체훈련 원예치료, 사이코드라마, 심신회복캠프 등을 운영해 지난해 말 현재 38명이 치유효과를 나타냈다.

기획사업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양성평등 부부학교 ▲장애가족의 행복지수 높이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야기 ▲이동상담실 '피앗'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인식개선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운동 및 바른 성문화 정착운동 캠페인 ▲밤길 밟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여성장애인 복지, 성인지 전문 모니터 자조모임 만들레가 결성됐고, 한지공예 자격증반에서는 3명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조사·연구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실태조사와 제주지역 장애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

시, 장애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내의 안전망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지적여성장애인 한글, 수화반 ▲그래픽 디자인반 ▲디지털카메라반 ▲지역사회 문화발굴반 등을 운영했다.

김경미 소장은 "상담소와 지역사회, 상담원과 여성장애인, 자원활동가와 대상 여성장애인, 전문가인 자문위원과 운영위원들 모든 것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상담소가 진정하게 여성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어가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들의 역량을 높여 제주도내 멘토 여성장애인들이 배출하며, 여성장애인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

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제주에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기에 그 역할 모델까지 담당, 여성장애인의 의견 등을 교류할 수 있는 편안한 상담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담소는 올해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를 움직이는 숨트기 교실(Ⅱ)'을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기초학습교실(지적장애인 한글반, 수화반) ▲자기성장교실

(한지공예 자격반, 그래픽디자인 제작반, 영어회화반) ▲특별활동교실(지역사회 문화체험, 지역사회 유적답사) 등이다. 또한 자아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멘토링을 통한 세상밖으로의 외침!'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미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위축되고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와 폭력 같은 악조건에도 희망을 일궈낸 여성장애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여성장애인 권익을 위해 상담소와 함께 한 많은 지인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문의=064-753-4980. <조순옥 명예기자>

# 아이들 꿈과 희망 키우는 행사 '풍성'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 전역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우선 어린이날 기념식 및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HAPPY 아이사랑 대축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에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유공민간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등 표창이 수여되며, 식전·식후 행사로 어린이와 교사들이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고전·현대 무용, 풍물공연, 아동극,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야외체험마당으로 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전통놀이, 레고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에 앞서 소외되기 쉬운 도

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도지사할아버지와 새싹들이 함께하는 밝은 세상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도지사와의 만남의 날을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탐라게스트하우스(옛 도지사 공관)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어린이 주간을 맞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인식제고와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아동복지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제3회 아동복지 세미나'가 1일 오전 10시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아이사랑협의회 주관으로 여러 지역중심의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일원에서 각 기관·단체와 마을 주관으로 어린이 어울림 잔치한마당이 풍성하게 열린다.

## 제86회 어린이날 및 제4회 어린이주간 행사

구분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및 장소
제86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우리아들과 함께하는 HAPPY아이사랑대축제	5월 5일 한라체육관 (09:30~14:30)	제86회 어린이날 기념 HAPPY 아이사랑 큰잔치	5월 5일 제주월드컵경기장 (10:00~14:30)
도지사님과 아동복지시설 아이들과의 만남의 날	5월 3일 탐라게스트하우스 (14:00~16:20)	제4회 대정·안덕 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 대정여고운동장 (10:30~16:00)
제4회 어린이주간기념 아동복지세미나	5월 1일 한라아트홀(소극장) (10:00~13:00)	2008 어린이 꿈잔치	5월 5일 남원생활체육관 (10:00~16:00)
제86회 어린이날 프로그램 「우리들 마음에 웃음꽃이 활짝」	5월 5일 서귀포시 워터월드 등 (09:00~17:00)	제9회 성산원광 어린이민속큰잔치	5월 5일 성산중학교 (10:00~13:00)
제8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모두모두 모여라"	5월 5일 제주시 해변공연장 (10:00~14:00)	2008 표선면 꿈나무축제	5월 5일 표선백사장 (10:00~15:00)
제주지역의도서관 개관4주년기념 어린이행사	5월 5일 제주지역의도서관 야외광장및 도서관내	제3회 희망 날개를 달자 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 갈매운동장 (10:00~16:00)
어린이주간행사 "함께 웃음을 나누는 제주시 지역아동센터어린이"	5월 10일 파크센터랜드 (태왕사신기세트장)	아동학대예방 및 미아예방캠페인	5월 5일 제주경마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애들아, 놀~자)	5월 5일 제주대학교 (09:00~17:00)	미아예방 아이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5월 5일 한라체육관



## 제주양로원 응급처치교육

제주양로원(원장 김부자)과 제주요양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119 노형소방서 강형석씨가 강사로 나서 기본인명구조술(심폐소생술)과 기도폐색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을 중심으로 실습도 진행됐다.



## 미아 유괴 예방교육 실시

제주영송학교(교장 김영욱)는 4월 6일 오전 어울림터에서 '미아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유괴를 당했을 때 아동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이 '싫어요, 안돼요, 부모님께 허락받아야해요.'를 말하도록 상황극도 해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백마디 말로 다 못하는 한 번의 사랑 나눔

## 저소득 노인 등에 11년째 무료급식

###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노인들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어울림쉼터에서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현장을 4월 16일 찾았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정현)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은 1998년 IMF사태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11년째 운영되고 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동반자적인 노력 덕분에 이 사업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랑하울 어머니회', '호울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조리봉사팀' 등 5개 팀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돌아가며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랑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여성문화센터 '구들회'와 미용봉사단체가 연계해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의 취지에 뜻을 함께하는 후원자들이 고기, 쌀, 설렁탕 등을 제공하고 있어 영양가 높은 급식이 이뤄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힘없는 그 분들께 따뜻한 식사 한번 드리는 것이 그리 큰일은 아니"라면서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고, 오히려 매일 찾아주시던 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 분의 안위가 더 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태식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을 대하듯 즐겁게 자원봉사를 하

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 사업을 지속시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볼만한 사회가 되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무료급식을 행하는 뒷모습이 백마디 말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으로 다가오는 그리 지나침이 아닌 듯 하다.

〈이명자 명예기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취임



최희순  
전 제주특별자치도  
체장애인지원  
회 부회장이  
4월 11

일 열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최희순 센터장은 "도내 장애인 자립생활을 널리 전파하고 지역사회내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순 센터장은 제주장애인아카데미장을 겸직한다.



## 제3회 CJ컵 축구대회 출전

### TOP FC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 유소년 축구단 TOP FC는 CJ 나눔재단·공군사관학교 주최로 4월 26일 외도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CJ컵 도너스 캠프 축구대회 제주지역 대표 선발전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이에 따라 TOP FC는 오는 9일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제주대표로 출전한다.



## 장애인 서예작품교류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용언)은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영등포문화예술회관과 서울장애인미술작가 스튜디오에서 장애인 서예작품 교류전을 열었다.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회에는 복지관 서예 수강생과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 작품 66점이 전시됐다.

##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서 후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해모스님과 한마음보은회는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을 방문,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 소/식/마/당

### 정신장애환우 부재자투표



제주정신요양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거소)투표를 신청,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환우 129명이 4월 3일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날 제주시선거관위의 참관 하에 정신장애환우들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함으로써 이들도 국민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제주정신요양원은 밝혔다.

### 가출예방 거리캠페인



제주청소년쉼터는 4월 11일 제주시 칠성로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출예방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도민들에게 청소년쉼터의 역할 등을 담은 리플릿을 나눠주고, 가출 관련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도 실시했다.

### 학교폭력예방 네트워크 협약식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황호민)는 3월 28일 평대초등학교(교장 박재형), 세화초등학교(교장 홍성욱)와 학교폭력예방 네트워크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 학교 관련 지역사회기관과의 학교부적응 학생 선도 및 보호활동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 서귀포온성학교신례초 통합수업



서귀포온성학교(교장 유제호)는 4월 2일 신례초등학교에서 신례초등학교 학생들과 통합수업을 실시했다.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 통합수업은 '사랑과일 꾸미기(2학년)', '대문놀이(3학년)', '스테인글라스 꾸미기(5학년)'로 진행됐다.

### 제주도자원봉사센터제주은행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4월 1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제주은행과 사회복지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및 홍보, 교육전문가(경제지원봉사) 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정혜원-삼성여고 자매결연



사회복지법인 정혜원(대표이사 이홍기)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삼성여자고등학교(교장 송권효)와 3월 26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혜원과 삼성여고는 상호 기관 방문과 주요행사 상호 초청 등을 통해 양 기관에 대한 이해와 학생교육의 지원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 노래와 율동으로 사회 통합 추구

## 가롤로의 집, 혼성합창단 결성

2년간 노래교실에서 실력을 쌓아 온 지적장애인들이 최근 혼성합창단을 결성했다.

제주시 화북에 위치한 가롤로의 집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생활인 30여명으로 구성된 '사랑하는 사람들 가롤로 합창단' 발대식을 3월 16일 가졌다.

합창단원들은 이탈리아 ADIM성악을 전공하고 ACM 음악교육원 최승욱 원장의 지도 아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도식화된 음계와 음계 율동을 통해 현재 '고향의 봄', '구슬비' 등을 연습하고 있다.

이 도식화된 음계는 최 원장이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면서 형성화된 문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롤로 합창단이 율동을 하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합창단이 사용하는 악보.

이 음계가 익혀지면 좀 더 깊이 있는 음계를 만들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롤로의 집 최영순 사회복지사는 "합창연습을 통해 생활인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책임감과 자신감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음악 뿐만 아니라 율동도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앞

으로는 핸드벨 특수 악보를 통해 핸드벨 연주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창단은 올 하반기에 지역 사회통합 및 사회적 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사회행사에 참여하고,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추영민 명예기자〉

##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4)명당떡집



## "떡을 통한 봉사활동 즐거워"

10년 전 제주시 도남동에 부부가 함께 문을 연 명당떡집(대표 홍성만, 홍 대표 부부는 '비록 적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자'란 생각에 지인을 통해 에바다능야교회 등에 떡을 후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1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을 나눠 주고 싶어 제주시구세군기초푸드뱅크에도 후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생일잔치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회 3 곳을 통해서도 사랑이 가득 담긴 떡을 전달하고 있다.

'후원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대표는 "의뢰가 들어오면 거절을 못하고 다 해주는 편"이라면서 "떡집이란 곳이 휴일 없이 일하다 보니

직접 찾아 가서 봉사는 못하고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작년부터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홍 대표 부부는 "푸드뱅크는 이웃의 마음까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이기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홍보해 푸드뱅크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의 떡이 맛있는 이유가 좋은 재료와 이들 부부의 숙련된 솜씨에 고운 심성이 더해져서가 아닐까 한다.

〈현경애 명예기자〉



홍성만 대표



## 함께 나눔 노인 한마당잔치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관장 임철남) '한아름가득'(도시락배달사업팀)과 '독거노인One-Stop지원센터'는 4월 16일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1리 노인회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함께 나눔 어르신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의 도시락배달 대상 노인 30여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과견사업 대상 노인 40여명 등 노인 90여명이 참석, 두배로어린이집(원장 정성용) 원아들의 난타공연과 '박경선 소리마당'(원장 박경선)의 자원봉사 공연 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은 "시끌벅적한 잔치마당에 참석해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독거노인One-Stop지원센터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후원연계를 통한 어르신한마당 잔치를 2회 정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마을회 및 부녀회, 남원1리 노인회, 동부보건소, 남원농협, 위미농협 등의 후원과 협력으로 마련됐다.

## 알림/마당

### ■ 장애인 영상기자양성교육 운영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은 이달부터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뉴스 따라잡기'와 'UCC 제작'으로 구성된 '장애인 영상기자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뉴스 따라잡기'는 오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UCC 제작'은 7월 1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교육이 이뤄진다.

제작비는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장애인 기자단을 조직해 현장 활동을 전하는 방식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기자단이 장애인의 일상과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을 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064-702-0295.

### ■ 24일 가족·제자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4일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옛 제주교육대학교)에서 '제4회 가족·제자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참가자들은 제주대 사라캠퍼스를 출발해 사라봉과 별도봉을 거쳐 다시 사라캠퍼스로 돌아오는 코스를 걷게 된다. 참가자들을 위해 구간별 즉석사진촬영과 투호던지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풍물, 즉석장기자랑, 댄스 등의 청소년 문화축제도 마련된다.

문의=064-751-5041~2.

### ■ 송죽원 부대시설 무료 개방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체육실과 물리치료실 등 부대시설을 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064-799-8555~6.

### ■ 하귀농협 하나로클럽서 자선바자회

국제사회가정문화원 제주시지부(지부장 임정민)는 오는 9일과 10일 하귀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자선바자회 '다문화가정 시골장터'를 연다.

이날 바자회에는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벼룩시장, 부침개와 김밥 등을 판매하는 떡거리장터,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장터 등이 운영된다.

문의=064-742-5641.

### ■ 장애아동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청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제주특별자치도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청암재활원과 연고가 있는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아동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운영한다.

청암재활원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모간 공감대 형성과 비장애 형제들과의 관계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064-799-2112.

### ■ 제과제빵체험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라원작업활동시설은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기는 장애인훈련생들과 함께 다양한 제과제빵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라원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생각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3회(월·화·목요일) 운영되고 있다.

문의=064-799-9225.

### 2·3월식품기탁자 명단·수량



▲SMC던킨도너츠=도넛 9490개 ▲명당양과=빵 265개

▲제주물류빵집(포파도르)=빵 405개 ▲바로방베이커리=빵 400개 ▲싱싱부식=김치 30kg ▲일성식품=고

춧가루 150kg ▲제주민속떡집=낭동떡 40kg ▲제주종가김치=김치 등 60kg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50kg ▲(주)서찬문축산=육류 220kg ▲(주)신세계이마트=쌀 및 통조림류 42개 ▲CJ(주)=식재료 및 음료 1만 1747개 ▲(주)오뚜기=라면 등 부식류 3533개 ▲롯데칠성=음료류 7828개

Column 칼럼

# 얼굴이 참 밝은 그



김길용  
수필가·시인

운명일까.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임경운 회장이 장애인이 된 것은.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일본에서의 일이다. 공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등지고 앉았던 고무자재 더미가 몸 위로 무너져 내렸다.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몇 시간 만에 그가 깨어났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하지만 척추를 다쳐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그렇게 귀국했다. 참담했다. 말짱하던 몸이 휠체어에 얹어졌으니, 잃어버린 직립보행, 그것은 비극이었다.

## 사고 후 장애인 비관술로 지새

절망에 몸을 떨며 꺼억꺼억 울었다. 허구한 날 폭음으로 지냈다. 충격에서 헤어나다치고 마셨고, 슬픔을 풀린다고 마셨다. 그러나

아니었다. 마실수록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독이었다.

어느 날, 술에 절던 극점에서 깨달음을 만났다. '이래선 안 된다.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는 수렁에서 허덕대는 자신을 건져 올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인간 힘을 썼다. 가녀린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먼 데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깨어났다. 발끈 일어섰다. 찬찬히 살피며 걸음걸음 반경을 넓혀나갔다. 그에겐 휠체어가 다리이다. 그의 운신을 휠체어가 따라주고 시종들어주었다.

때마침 제주문학회 주관한 장애인을 위한 문학 강좌에 귀 기울이면서 문학에 눈 뜨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글로 써 보고 싶었다.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다.

몇몇의 뜻을 모아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엮었다. 회장으로 그가 중심에 섰다. 그들은 '글사모'라는 약칭까지 거부한다. 20명 회원들이 좋은 글을 쓰려는 의욕으로 충만하다. 대단한 집념들이다. 특히 그가 적극적이다. 비장애인이까지를 아우르며 회원 늘리기에 힘쓰는 그의 모습은 함차고도 아름답다.

그는 글을 쓰는 일에 진지하고 집요하다. 나는 이태 전, 그를 수필가로 '대한문학'에 추천했다.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그는 특히

스포츠수필에 뛰어나다. 경기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 나간다. 축구, 야구, 배구, 복싱을 꿰찬다. 경기의 실황을 꼼꼼히 풀어나가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다. 소재에 걸맞게 언어가 긴장돼 박진감으로 넘친다. 그뿐 아니다. 다독과 다작으로 수필에 내공을 쌓는다. 치열한 접근이다.

## 2006년 수필가등단 새삼

그에게 수필등단은 단순히 통과 의례가 아니었다. 새로운 탄생의 의미였다. 등단하면서 주위로 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을 것이다. 축하전화, 축전, 축하선물... 이제 수필가라는 타이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닌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다. 수필을 쓰고 수필을 아끼는 사람, 문단에 이름 석 자를 올린 사람, 수필에 일가를 이룬 사람만이 붙일 수 있는 빛나는 이름이다.

요마직에 그는 현아씨를 맞이했다. 어둠을 몰아낸 자락에 다소곳이 웃음을 머금고 들어와 그의 다리가 돼준 여인. '대한문학'의 수필 신인상 시상식 때도 함께 다녀왔다. 그녀는 마음이 곱고 헌신적이다.

그의 얼굴이 참 밝다. 문학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에 현아씨가 앉아 있어서일까.

寄稿 기고

# 사랑을 만들어가는 작은공동체 '가정'



허철현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가정은 새 생명을 세상에 초대한다. 이 세상에서 삶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이며 보금자리가 가정이다. 가정은 교육과 사회의 구성원을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소공동체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가정이 첫번째 학교라면, 부모는 교사다. 선부른 교사관일런지 모르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가르치고 실천하는 리더자이다. 이런 가정환경 속에 부모가 한 작은 행동이 자녀에게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필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안에서 예상치 않은 위기나 고통, 축복받는 일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그 고통과 기쁨을 같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순간과 과정을 견뎌내고 극복해가며 자구책을 찾아내고, 그 축복속에 가정의 소중함을 찾아낼 때 부모가 리더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

가족들과 한달에 한두번쯤은 각자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본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진지하게 듣고, 자녀에게 부모의 꿈과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등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진지하게 듣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려니 '닭살이 돋는다, 쑥스러워서 잘 안된다'는 얘기를 한다. 이런 가족들에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여행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가정복지를 가져다주는 행복의 시

간이 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행을 통하여 구성원의 정보와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며 행복이 이어질 것이다.

이 좋은 날들을 우리 가족들의 삶에서 기쁘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부모됨과 자녀됨, 스승의 가르침, 부부로 산다는 것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가정'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뒤따라 나온다. 부부갈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문제... 이 아픈 현실을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막연해진다. 어머니로 살기 좋은 정도를 따지는 '어머니 지수'가 전 세계 140개국 중 우리나라는 46위, 그리고 '어린이 지수'는 47위라고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위기의 아버지, 위기의 남성에 대한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다.

싱그러운 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사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5월을 기대해 본다.

時論 시론

# 노숙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간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노숙인, 혹은 부랑인이라고 지칭되는 이들.

사전속의 부랑인은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편동편동 돌면서 떠돌아 다니며 난봉짓이나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틀리다. 이들은 난봉짓과 방탕한 생활을 할 한량이 아니며 그럴 돈도 없다. 이들은 적선으로 살아간다. 일할 몸뚱이리가 있음에도 술에 절어 기생하는 것이 좋을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유토파아가 아닌 이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다.

## 노숙인에 적절한 재할·자립 기회 제공해야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는 노숙인은 1명이고 관련 예산은 1억원이라고 하였다. 1명의 노숙인이 탐동광장과 용담레포츠공원, 시청 등지에 신출귀몰하게 출현하고, 단 한명을 위해 1억원을 쏟아붓는 것이냐는 도의원들의 역설적 질타가 있었고 순식간에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돼버렸다.

올해 초 제주시가 확인한 공식 노숙인은 2명. 지난 달에 오리엔탈호텔 인근 폐가에서 잠을 자던 2명의 노숙인이 화마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니 제주시에 공식적으로 노숙인이 없어야 마땅다.

필자가 아는 분 중에 지속적으로 노숙인 문제를 고민하시는 사관님이 계신다. 행정감사를 위해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상담하며 기록한 노숙인은 100여명에 가까웠고 이들의 주거지는 폐가뿐만 아니라 하천 등지와 동굴까지 있다고 하였다.

노숙인 숫자가 2명에서 100명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발적 노숙자와 노숙우려자(예비노숙자)로 나누어 봄이 이유이다. 행정기관에서는 근처의 여인숙을 이용하거나, 집은 있되 가출한 이들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유심히 구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관광제주, 국제자유도시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일 수 있어 기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 환영받지 못한다. 날씨가 풀려 가면 행정기관의 노숙인 대책문서가 등장한다. 이 문서에는 예외 없이 '노숙인 집중단속·정리'라고 표현돼 있다. 단속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예비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이렇듯 노숙인들은 예비범죄자로 낙인찍혀 있고 투명인간이기를 강요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마음과 육체의 병을 갖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업실패의 충격 혹은 가족해체, 경쟁에서 밀려 생긴 신체적·정신적 병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그들이 애초부터 노숙인을 꿈꿨는가.

이들의 노력에 비해 적절한 치료재활과 자립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 실패한 자에 대한 아량도 없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발상이다. 거리의 보헤미안 '집시족'은 게르만우월주의의 히틀러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했다. 우리사회의 노숙인과 집시족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시는 4월 초 '노숙인 없는 제주도, 노숙인 제로 추진'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어떤 의미인지 두고 볼 일이다.



2008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종합복지관, 차별화 통한 경쟁력 강화해야

2008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동 주최로 4월 17~18일 이틀에 걸쳐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렸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08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17~18일 이틀에 걸쳐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렸다.

## “지역주민 조직화 가장 중요”

박태영 교수 ‘지역사회복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박태영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역할정립’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복지의 거점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성패는 사회복지관의 비전이 지역사회를 지향하고 그 방법론으로 지역사회조직화를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주민 조직화 사업 내용으로 공동의 지역과제나 주민의 공통적 관심사를 제시했다.

즉, 주민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 과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의 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곤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역할에 대해 △공공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를 꼽았다.

지역조직 간의 연계·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사회복지관은 지역내 다양한 조직과 연계협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거점영역에서의 특화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관계자의 인식전환 △적절한 민간 파트너십 형성·유지 △지구(地區) 단위의 복지 거점기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점기관이 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기존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상당수의 사회복지관의 모양새는 거점기관 수준이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그에 걸맞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지역에서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복지관, 정체성 혼란 직면”

전광현 교수 ‘종합복지관 경쟁력 강화방안’

전광현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도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영역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장애인복지관 등 단종복지관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설치, 운영되면서 전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의 중복과 전문성 저하, 예산제공 부서와의 단절 등으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전문화를 둘러싼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화와 정체성에 따른 문제로 △위탁 운영의 문제 △사회복지관 위치 및 이용자의 문제 △사업 대상의 문제 △본래적 기능의 문제 △주민 참여 결여현상 △운영재원의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종합복지관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며 “따라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다른 서비스기관과 차별화해야 하고 △복지관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갈 것인지 확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서비스 현장에 대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 상태를 개선하고 이용자 요구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복지관은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가장 취약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만나 지역사회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직원들의 바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합쳐 ‘사회복지 운영’ 시대에서 ‘사회복지 경영’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시대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자주제정을 확충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름다운 제주를 담아가세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대전  
관광기념품분야 금상 수상



제주의 다양한 야생화 중  
한라산의 시로미를 형상화 한  
디자인 열림 엠블렘

**DESIGN YEOLLIM**  
디자인열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팜플렛, 카달로그, 브로셔, 리플렛, 정기간행물, 패키지 제작  
690-163, 2730-4 Ora3dong, Jeju 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tel. 82.64.746.0775 fax. 82.64.746.0774 제품 판매처: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쇼핑몰센터

